

사슴뿔 황비님

김코끼리 지음

도서출판 가하)

사슴뿔 황비님

지은이 : 김코끼리

브랜드 : 가하 에픽

펴낸곳 : 도서출판 가하

홈페이지 : www.ixbook.co.kr

copyright © 김코끼리, 2018

ISBN : 979-11-300-3200-9 058

10

이 책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 및 무단복
제를 금합니다.

작품 소개

“널 황비로 만들어주겠다고 했었지. 그래서 데리러 왔어.”

사라진 소꿉친구가 반년 만에 돌아왔다.

붉은 눈의 황자가 되어서.

“네가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외로운 사냥꾼이 피비린내 나는 황궁의 예비 황비가 되었다.

그를 위해서.

음모와 광기가 넘치는 황궁에서
살아남기 위해,

둘만의 처절한 싸움이 시작된다.

“오랜만이니까 다시 소개부터 할
게.”

“.....”

“마가리타 제국의 5황자. 루카릭
스 드 마가리타야.”

그의 황금빛 머리카락이 이리저리
바람에 날렸다.

“내가 널 황비로 만들어줄게. 평
생을 행복하게 살게 해줄게.”

작가 소개

김코끼리

오래 생각나는 글을 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Prologue

시위를 당기고 숨을 죽인다.

모든 신경이 하나로 쏠린다. 세계가 급격히 좁아진다.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긴장으로 몸이 터져 나가기 직전까지 버틴다. 진이 가장 좋아하는 순간이다. 속으로 셋을 센다.

셋, 둘, 하나.

그녀는 시위를 놓았다. 화살은 토끼의 몸을 똑바로 관통했다. 토끼는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고 축 늘

어졌다. 흰 털에 피가 번진다. 그녀는 목걸이를 꺼내 입을 맞췄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문밖 갈고리에 토끼를 걸어두고 얼굴과 손을 씻었다.

오늘은 토끼를 잡았으니 운이 좋은 날이었다. 한 번도 자기가 나쁜 사냥꾼이라 생각해본 적은 없었다. 하지만 아무리 실력 좋은 사냥꾼이라도 매일 사냥감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게다가 겨울이 오면서 산에 짐승이 줄고 있었다. 혼자서 버티는 겨울은 처음이니 잘 대비해야 했다.

‘혼자서 버티는 겨울.’

그녀 스스로 떠올린 생각이 묘하게 마음을 어지럽혔다. 그녀는 방을 한차례 둘러보았다. 침대 옆엔 곰팡이가 슨 목조 욕조가 보인다. 사실상 동물 피를 뺄 때나 쓰는 것이다. 그 옆으로 조리대가 있고 거울 달린 옷장이 있다.

그게 여기 있는 전부였다. 그 외엔 아무것도 아무도 없었다.

「왜 이렇게 늦었어?」

들릴 리 없는 목소리다.

진은 목걸이를 풀어 침대 옆 선반에 내려놓았다. 목걸이에 달린 붉은 보석이 햇빛에 반짝 빛을 발한

다. 할머니가 진에게 물려준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냥꾼이었던 할머니. 할머니는 오로지 그 목걸이 하나만 남기고 몇 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떴다.

그래도 그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인생 단 하나의 친구가 아직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로 혼자다.

다 부질없는 생각일 뿐이다. 그녀는 고개를 흔들며 사념을 떨치고 바깥에 걸어둔 토끼를 가져왔다.

토끼는 하도 많이 잡아서 손질이 손에 익었다. 피를 뽑고 털을 제거하고 가죽을 보존액에 담가뒀다.

무두질이 쉽도록 해두면 더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었다. 남은 고기는 감자와 당근과 우유를 넣어 수프를 끓였다.

고기가 익는 냄새가 좁은 오두막에 가득 찬다. 수프를 그릇에 담을 때에야 혼자 먹기에 많은 양이란 걸 알았다.

습관은 무서운 것이다. 루카스가 사라진 지 벌써 반년, 수프 냄새에 그녀는 습관적으로 입맛을 다셨다.

다음 날 진은 토끼 가죽을 팔러 마을로 내려갔다. 그녀가 터를 둔 이 마을은 산동네 중에서도 산동네, 한 달이 지난 소식이 이제야

발 빠른 이의 귀에 들어오는 변두리 마을이다.

오는 길에 그녀는 삼삼오오 모여 떠들어대는 마을 여자들을 보았다. 근래 마을은 황위 시험 때문에 떠들썩했다. 반년 전, 늙고 병든 황제가 드디어 황위를 물려주기로 선포한 것이다.

태어나자마자 실종되었던 5황자가 시험 직전 나타난 기적적인 이야기는 벌써 유명했다. 여자들은 누가 황제가 될 것인지 내기를 하는 듯 동화를 짤랑이면서 자기들끼리 깔깔 웃었다.

진이 그들의 옆을 스쳐 지나자 여자들이 대놓고 눈을 흘기며 입을

다물었다. 마치 그녀가 몰래 끼어들어 엿듣기라도 한 양.

물론 그녀는 그런 이야기에 하나도 관심이 없었다. 저런 한심한 이야기나 하느니 차라리 병어리가 낫겠다고 생각했다.

황자와 마법, 용이 나오는 세계는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할머니와 루카스가 살았다 떠난 그 작은 오두막이 그녀 세계의 전부였다.

그녀는 발걸음을 빨리해 가죽가게로 들어섰다. 가죽가게 엠마 아주머니는 그녀가 내놓은 가죽을 들어 흠잡을 곳을 꼼꼼히 찾아내고는 엄숙히 선언했다.

“5달러. 그 이상은 안 돼.”

루카스와 같이 왔을 땐 늘 7달러 이었다. 그녀는 답답해서 고개를 돌렸다. 뒤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눈이 마주치자마자 시선을 피했다.

그녀는 그냥 5달러를 받고 돌아섰다. 화를 내봤자 뻔하다. 애들만 남은 거 불쌍해서 잘 챙겨줬더니 어디서 적반하장이냐고 눈을 뒤집을 것이다.

엠마의 레퍼토리는 너무 진부해서 오히려 말하는 이를 포기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다.

딱히 돈이 급한 상황도 아니었다. 루카스가 남기고 간 돈은 아직 좀 남아 있었다. 어디서 그만한 돈을 구했는지, 왜 진작 안 주고 떠날

때에야 놔두고 갔는지 알 수가 없다. 언제나 알 수 없었던 그녀의 세상 유일한 소꿉친구.

아니, 진은 루카스 생각을 그만두었다.

루카스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가 떠난 날부터 그렇게 생각했다.

그는 아무 날도 아닌 날에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떠났다. 그녀는 막연히 그가 떠난다면 왔을 때처럼 첫눈 오는 날에 떠날 거라고 생각했었다. 내리는 눈 속에서 홀로 서서 그녀를 바라보던 그 눈.

할머니는 그녀와 루카스가 결혼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글썄,

그녀가 보기에 그는 절대로 여기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빵과 먹을거리, 화살을 사들고 어둑해진 산길로 들어섰다. 바람소리가 불길했다.

요 근래 마을은 산에서 내려온 멧돼지의 공격을 받고 있었다. 겨울이 오는 것이다. 모든 동물들이 굶주리는. 그제야 불안감이 엄습했다.

원래 이맘때쯤 그녀는 항상 활을 들고 다녔다. 그러나 오늘은 없다. 까맣게 잊은 것이다.

이런 적이 없었다. 루카스가 사라진 것이 모르는 새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었던가. 그녀는 걸음을 빨

리했다. 집까지는 삼십 분. 왠지 아무 일 없이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사냥꾼의 감이라는 것이 있다. 쫓아본 자는 쫓는 자의 기척을 안다. 굳이 이런 격언을 떠올리는 이유야 뻔하다. 그녀는 노려지고 있었다.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무리에게.

쫓는 양상을 보니 굶주린 늑대 무리가 틀림없다. 수는 서넛. 가끔 성질 급한 그르렁 소리가 희미하게 잡히는 걸 보니 제법 가까이 있다.

보통은 이쯤에서 갈기갈기 찢어져 마땅하다. 그러나 그들은 신중하게

굴었다. 오랜 굶주림 탓에 기력이 많이 쇠한 탓이다.

그녀는 냉정하게 살아날 확률을 점쳐보았다. 집까지는 십 분. 달리는 순간 일 분 내로 따라잡힌다. 그렇다고 계속 걷는다면? 그들의 신중함은 오 분 이상 지속될 성질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느닷없이 몸을 모로 돌려 풀숲으로 들어갔다. 늑대 무리의 당황이 느껴졌다. 좋다. 그녀에게 의외성을 부여해야 한다. 그들이 더 신중해지도록. 그녀는 속도를 빨리해 성큼성큼 걸었다.

한편으로 허벅지 뒤쪽에 찬 벨트

에서 단검을 꺼냈다. 손바닥이 축축했다. 땀을 바지에 문질러 닦았다. 이대로 스무 걸음. 그녀는 속으로 일부터 수를 세기 시작했다. 까마득히 멀리서 들리던 풀이 짓밟히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진다.

‘……스물.’

그녀는 걸음을 뚝 멈췄다.

모든 소리가 그쳤다.

춡다. 이렇게 추운데도 관자놀이를 타고 땀 한 방울이 흘러내린다. 그녀는 단검을 짊 쥐었다.

그녀는 달리기 시작했다.

빼곡히 선 나무들이 그녀 뒤로 빠르게 스쳐간다. 늑대 떼들 사이에 혼란이 일었다. 그러나 아주 잠시

였다. 곧 그들은 킁킁 짓으며 그녀를 쫓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머리를 숙였다. 그들은 무서운 속도로 따라붙는다. 이제 십 초도 못 버틸 것이다.

등에 끈적한 숨결이 달라붙는 것 같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그녀는 속으로 할머니를 부르짖었다.

‘할머니……,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갑자기 머릿속에 루카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녀에겐 이제 누구도 없다.

그 순간 진의 눈앞이 환하게 트였다. 숲이 끝나고 별이 뜬 하늘과 저 멀리 까마득히 먼 마을의 전경이 흰히 내려다보인다. 열 발자국도 안 되게 가까이 땅이 끝나고 가파른 절벽이 나타난다.

진은 달리면서 단검을 두 손으로 모아 쥐고 손을 머리 위로 들어올렸다.

절벽과의 여유를 두고 발을 박차다. 상체가 바닥으로 향하도록 허공에서 몸을 뒤집었다. 그녀가 방금 지나온 모든 것들이 뒤집혀 보인다. 침을 흘리며 달려오는 늑대 떼들이 앞다투어 이빨을 들이민다.

바로 그녀 눈앞으로 늑대의 벌어

진 아가리가 확 다가왔다. 숨결에서 공복의 썩은 냄새가 났다. 날카롭게 베틀어진 이빨도 소름끼쳤다. 콧등에 시린 감각이 스쳤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그 거대한 이는 그녀를 죽이지 못하고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간다. 하지만 안심하긴 일렀다. 시야 위쪽이 암석으로 뒤덮이고 있다.

그녀는 손에 전 단검을 뒤로 힘껏 젖혔다가 온 힘을 다해 절벽에 꽂았다. 반동으로 팔이 찢어질 것 같았다. 다행히 단검은 드드득 소리를 내고 절벽 틈으로 파고들어 갔다.

몸이 휘청 돌면서 세상이 다시 뒤

집힌다. 그녀의 등 뒤로 묵중한 무언가가 떨어지는 기척이 느껴졌다. 늑대 하나가 제 속도를 이기지 못한 것이다.

한참을 숨을 죽이고 있었다. 절벽 위는 아무 기척이 없다. 절벽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그녀를 찾는 기척도, 그렇다고 포기하고 돌아가려는 기척도.

어쩌면 그녀를 유인하려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늑대는 지능이 높은 동물이니까. 하지만 더 이상 매달려 있다간 팔이 빠질 것 같았다.

이럴 때 루카스는 늘 마지막에 등장해서 떨어지려는 그녀의 팔을 잡

아주곤 했다. 늦게 와서 생색은 다 낸다고 짜증내도 빙글빙글 웃기나 하곤.

가끔 그녀는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마음껏 자도 깨우는 사람이 없는 날, 이대로 영원히 자더라도 아무도 모를 거라는 생각이 들 때, 무덤과 사체 말고는 말 걸 데 없을 때.

그럴 때는 괜히 원망할 대상과 기억을 찾게 된다. 떠날 거였으면 그렇게 다정하게 굴지 말지. 그런 말 같은 거 하지 말지…….

할머니가 죽은 날이었다. 할머니는 그녀가 아는 가장 뛰어난 사냥꾼이었지만 막대한 치료비를 대기

는 무리였다. 그녀가 벽에 기대어 눈물이 신발코에 떨어지는 걸 구경하고 있을 때 루카스가 다가왔다.

「진.»

「응.»

「절대로 이런 일 다시 겪게 하지 않을게.»

「……응.»

「내가 널 황비로 만들어줄게. 평생을 행복하게 살게 해줄게.»

그때 그가 어떤 목소리로 그런 말을 했었던가. 그녀를 안아줬던가. 그러나 그런 말을 담기에 그는 너무 미숙하고 어린 소년이였다.

대충 잘라 덩수룩한 머리와 긴 소매를 늘어뜨린 모양은 영락없는 시골 아이였다. 가끔씩 그 눈동자에 뜻 모를 음울함이 감돌 때조차 단순히 어린아이의 치기로 보일 따름이었다.

아니, 이제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다.

어쨌든 그는 떠났다. 더 이상 팔의 통증을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체념했다.

그녀는 힘겹게 절벽 위로 팔을 걸쳤다. 온몸의 뼈가 다시 맞추어지는 듯한 격통이 몸을 감쌌다. 그래도 그녀는 꾸역꾸역 올라갔다. 간신히 상체를 완전히 절벽 위로 걸

친 뒤에는 바닥을 기어서 발끝까지 끌어올렸다. 그제야 진정하고 고개를 들 수 있었다.

아.

여섯 개의 푸른 눈동자가 그녀를 보고 있었다.

인가의 불빛을 등지고 선 그녀에게 보이는 빛은 오로지 그 형형한 안광뿐이었다. 그녀를 속이는 데 성공한 그들은 다시 으르렁거리기 시작한다.

맥이 탁 풀렸다. 모든 게 끝났다. 가장 몸집이 큰 늑대가 이를 드러내고 침을 흘렸다. 입이 웃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이 한 발자국씩 그녀에게 다

가왔다. 그녀의 손이 덜덜 떨렸다. 반대쪽 손으로 떨리는 손을 내리놓았다.

그녀는 아주 긴 숨을 쉬었다. 마지막 숨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그리운 사람을 불렀다.

‘할머니.’

무덤에 가려고 했었는데.

“찾았습니다!”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다. 그리고, 진이 살면서 들었던 것 중 가장 끔찍한 소음이 그녀를 덮쳤다. 눈을 감고 있는데도 빛이 눈을 찌른다. 그녀는 귀를 틀어막고 흙바닥에 고개를 박았다.

한참 뒤에야 소리가 멎었다. 세상

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도로 태연해졌다. 그제야 그녀는 고개를 들어올렸다.

늑대들은 모두 혀를 빼물고 죽어 있었다. 번개를 맞은 것처럼 온몸이 꺼렇게 탔다. 그 뒤로 수십 명의 제복을 입은 군사들이 그녀를 향해 무릎을 꿇고 있었다. 안도감 이전에 상황 파악부터가 안 됐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앉았다.

“5황자께서 들어오십니다!”

몇십 명의 목소리가 찌렁찌렁 울렸다. 그녀는 당황해서 물러나려다 도로 벼랑으로 떨어질 뻔했다.

군사들이 벌떡 일어서더니 양옆으로 갈라서서 한쪽 팔을 가슴에 대

고 고개를 숙여 정렬했다. 그 사이로 한 남자가 유유히 걸어 나왔다. 그녀는 눈을 의심했다.

루카스였다.

그녀의 7년째 소꿉친구.

‘루카스가 5황자라고?’

루카스가 태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안녕, 진.”

그의 파랗던 눈동자는 이제 선명한 붉은색이다. 가장 고귀한 혈통, 용족의 피를 이어받은 로열 블러드만 취할 수 있는 색.

반년 새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그러나 그녀가 그를 제대로 알아

보지 못한 데는 다른 이유도 있었다. 그는 분명 나이답지 않은 구석이 있었지만, 선이 얇은 턱과 하얀 피부 등 외모만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예쁘장한 소년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그에게 소년이라는 단어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거의 두 뺨은 더 큰 것 같았다. 절대 작지 않은 키인데도 그녀는 그를 한참 올려다보아야 했다.

그는 셔츠 단추 한두 개를 풀어헤치고 소매를 걷어 올린 채, 황실의 문양이 금자수로 박힌 벨벳 재킷을 어깨에 걸치고 있었다. 잔 근육 있는 팔뚝 위로 긴 힘줄이 사선으로 지나가고 있었다. 허리에는 긴 장

검이 검집째 달려 있었다.

그는 안 본 사이 어깨도 넓어진 것 같았다. 원래도 오랜 노동으로 단련되었던 몸이지만 지금은 왠지, 크고 굵어졌다고 해야 할까.

누구라도 한 손에 쥐어 잡을 법한 강인한 분위기가 온몸에 감돌고 있었다. 그건 어찌면 눈 때문일지도 모른다.

눈동자 색뿐만이 아니라 눈빛까지 변했다. 모든 걸 내려다보는 듯 오만하고 날카로운 시선.

그녀는 5황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 있다. 동네 여자들이 낄낄거리며 했던 말들. 실종된 줄 알았다 반년 전 혜성처럼 황궁에 입성한

황자.

사람들은 모두 대체 그가 어디 있다 나타났는지 궁금해 했다. 그녀가 살고 있는 이 산골 동네는 아주 외곽 변두리 동네다. 제국병들이 찾아내기엔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하지만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건 아예 다른 문제다.

실종된 5황자가 어느 작은 변두리 동네에서 몰래 살아갔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게 루카스라고? 그녀와 7년을 함께 살았던?

그는 그녀의 바로 앞까지 걸어와 그녀의 손을 잡고 일으켰다.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가 풀렸다. 그녀

는 그의 품 안으로 넘어졌다. 그가 그녀를 붙잡아주었다.

그는 열다섯 살부터 진의 키를 넘어서 열일곱 살에는 그녀의 머리가 그의 코끝에 겨우 닿았다. 그녀는 그의 가슴에 안겨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그는 웃었다.

“오랜만이니까 다시 소개부터 할게.”

“.....”

“마가리타 제국의 5황자, 루카릭스 드 마가리타야.”

그의 황금빛 머리카락이 이리저리 바람에 날렸다. 웃는 얼굴만큼은 아직 소년처럼 싱그러웠지만, 단지 친구로 여기기에 그는 이미 완전한

한 명의 남자였다.

루카스가 품속의 그녀를 내려다보면서 다시 웃었다. 그녀는 낯설어진 품에 위화감을 느꼈다.

“널 황비로 만들어주겠다고 했었지. 그래서 데리러 왔어.”

그래, 그렇게 말했었지.

그러나 그건 다 해묵은 위로일 뿐이다. 그때 그가 어떤 식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조차 기억에 없다. 하물며 진심으로 바랄 리가…….

갑자기 콧등이 아려왔다. 그녀는 손등으로 코를 문질렀다. 말라붙은 피 사이로 푹 팬 흠이 느껴졌다. 늑대가 핥고 간 흠이다.

몇 년째 입는 허름한 가죽 셔츠,

다 떨어진 신발, 피투성이 얼굴. 그녀에게 황비라는 단어는 북쪽 나라에서만 핀다는 눈꽃, 혹은 비겁한 농담 같았다.

“진.”

그가 그녀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보고 싶었어.”

그녀는 백치마냥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등 뒤에 검은 나무들이 솟아 있고 그 위로 달이 떠 있다.

뻘하고 신성한 장면이다. 어느 것도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그저 아름다웠다.

#재회

그녀가 루카스를 만난 건 열한 살 때다. 그러나 루카스 이야기를 하자면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되짚어 봐야 한다.

그녀는 겨울에 태어났다고 한다. 어머니는 그녀를 낳다 죽었고 아버지는 그해 겨울 산에서 얼어 죽었다. 갓난쟁이인 그녀를 할머니가 거뒀다.

할머니는 그녀에게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가르쳐주었다. 동물

내장을 꺼내는 법, 가죽을 벗기는 법, 화살을 쏘는 법, 땀감을 모으는 법.....

할머니는 대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언제나 그녀가 할머니의 딸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냥꾼의 딸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를 싫어했다. 그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싫어했다고 한다. 그녀는 할머니가 고위귀족 출신이라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아마 그래서 싫어하는 게 아닐까 그녀는 추측했다.

그들은 할머니를 저주받은 여자라고 욕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녀를 두려워했다. 무서워 미처 건드리지

도 못했다. 할머니는 무사했다. 그렇지만 그녀는 그렇지 못했다.

사람들은 할머니 대신 그녀를 괴롭혔다. 어리고 약한 그녀는 그들에게 어떤 두려움도 주지 못했다.

어른들이 그녀에게 침을 뱉으면 할머니가 달려왔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의 장난은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모든 게임에서 매일 술래였다. 도망쳐도 도망쳐도 그들은 그녀를 쫓아왔다. 숨는 것도 고통이었다. 겨울밤 짚단에 숨어 있다 얼어 죽을 뻔한 적도 있다.

잡히면 더 끔찍했다. 그들은 온몸을 꼬집었다. 꼬집은 자리마다 파

랴게 멍이 들었다. 그녀는 할머니가 눈치채지 못하게 매일 그 위에 밀가루를 덧발랐다.

그녀는 자주 울었다. 매일 울었다. 짚단에 몸을 숨겼을 때도 멍이 들었을 때도 잠들기 전에도 울었다. 눈가가 짓무를 때까지 심장이 터질 때까지 안구가 아릴 때까지 울었다.

그녀는 매일매일 하느님께 기도했다. 차라리 이럴 거면 빨리 데려가시라고.

그 대신 하느님은 그녀를 구할 사람을 보내주었다.

첫눈이 온 날이었다. 그녀의 열한

번째 생일이기도 했다. 마을 아이들이 눈을 맞으러 뛰어다니고 쌓이면 눈싸움을 하자고 떠드는 동안 그녀는 최대한 그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 애쓰며 가족을 팔러 엠마 아주머니에게 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가게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엠마 아주머니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

「진! 내가 당분간은 필요 없다고 했을 텐데!」

엠마의 목청은 아주 찌렁찌렁했다. 덕분에 반경 100미터 안의 모든 아이들이 그녀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됐다. 가게 바깥에서 어린아이 십여 명의 찢어지는 외침이 들

렸다.

「저기 있다! 멍청한 진! 멍청한 술래!」

그녀는 가족을 어깨에 메고 가게를 박차고 나가 닥치는 대로 뛰었다.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뛰었는데도 웃음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기만 했다.

그녀는 얼마나 따라잡혔는지 확인하려고 뒤를 돌아보았다. 시끌벅적 웃고 있는 아이들이 보였다. 그들은 그녀가 돌아보길 기다렸다는 듯 금세 악랄한 말들을 쏟아냈다.

「야! 진!」

「느림보 게으름뱅이! 제대로 가지도 못하면서 또 어딜 가냐?」

그들은 마치 몰이사냥을 하듯이
고함으로 그녀를 위협했다. 몇 명
은 그녀보다 너덧 살은 더 먹었고
덩치가 그녀의 두세 배는 되었다.

그런데도 아직 그녀가 따라잡히지
않은 건 저들이 일부러 그녀와 속
도를 맞춰서 그녀를 갖고 놀고 있
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피딱지가
눌러앉은 입술을 다시 씹었다.

이대로 아무 의미 없이 잡혀서 또
꼬집히기는 죽기보다 싫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무언가 들어왔
다. 팻말이었다. 산의 입구를 알리
는 팻말.

마을 뒤에는 산이 있었다. 사나운
짐승이 많아 어른들도 오르길 꺼리

는 산이었다. 그러나 어린 그녀가 그 위험을 제대로 알 턱이 없다. 그녀는 그저 저 웃어대는 아이들이 닭 쫓던 개 꼴로 한 방 먹기를 바랐다.

그녀가 팻말을 지나 산에 들어서자 머리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으로 웃음소리가 잦아 들었다.

그 쾌감에 더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그녀는 달렸다. 소리가 잦아들다 못해 아주 들리지 않을 때까지.

얼마나 달렸을까. 한참 뒤에야 멈춰선 그녀는 그제야 숨을 골랐다. 이제 집에 돌아갈 수 있다. 도로 집으로 돌아가려고 돌아선 그녀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녀가 어느 방향으로 왔는지 잊어버린 것이다.

눈은 계속 오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최악의 선택지를 택했다. 계속 걷는 것이다. 당연히 아무리 걸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날은 점점 추워지고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다. 정말로 여기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상하게 진은 슬프지도 비참하지도 않았다. 그냥 빨리 고통이 끝나길 바랐다. 우습게도 그런데도 걸음을 멈추지 못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갑자기 시야가

탁 트였다. 공터처럼 나무가 자라지 않는 곳이 있었다. 그곳에 누군가 있었다. 원래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였다는 마냥,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있었던 것처럼.

눈을 떴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소년이었다. 이 지독한 상황을 순식간에 꿈의 어딘가로 바꿔놓을 만큼.

황금빛 머리카락이 태양을 받아 반짝였다. 얼핏 보면 여자아이로 착각할 만큼 고운 턱선, 가녀린 손목.

묘한 미소를 입술에 건 채로, 그가 느리게 고개를 돌렸다. 눈이 마주쳤다. 눈동자가 붉게 빛났다.

‘……붉은색?’

그녀는 눈을 비볐다. 순간 헛것이 보였나 보다. 다시 보니 그의 눈동자는 그녀와 비슷한 푸른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안녕.」

그가 말을 걸었다. 그녀는 당황해서 한 걸음 물러섰다.

「넌 누구니?’

「나……는 진이야. 저 아래 마을에 살아.」

그녀는 그가 그곳에 살지 않는 게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그는 그런 우악스러운 삶의 현장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진. 그러면, 혹시 너희 집에 나도 같이 살아도 될까?」

사투리 하나 안 섞인 아주 우아한 목소리였다. ‘창문을 좀 열어도 될까요?’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듯 가벼운 어투.

그 덕에 그가 하는 이야기는 조금 더 늦게 진에게 받아들여졌다. 그녀는 화들짝 놀라서 되물었다.

「우리 집?」

「응.」

「하, 할머니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괜찮아. 그럼 가자.」

그가 아주 당연하다는 양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이끌기 시작했다

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도저히 트집을 잡을 수 없었다.

눈은 이제 흙 위로 소복이 쌓였다. 그가 남긴 발자국 위에 괜히 그녀의 발을 겹치면서 진은 그를 따라 눈산을 내려갔다.

그는 한 번도 갈림길에서 망설이지 않았다. 오히려 따라가는 진이 마음을 졸일 만큼 주저 없는 발걸음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불안이 무색할 만큼 그는 그녀를 산 문턱으로 다시 인도해주었다. 다시, 그녀가 아는 세상이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다.

드디어 살았다는 안도감에 가슴이

벽쳤다. 절로 코끝이 찡해졌다. 그녀는 소년의 손을 놓고 그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울음소리를 내기 싫어서 진은 이를 악물었다. 소리 없이 우는 건 숨어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었다. 곧 눈물이 쏟아졌다. 그가 진에게 다가왔다.

「왜 소리를 안 내고 울어?」

이상한 질문이었다. 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가 그녀의 얼굴을 가린 손을 떼어냈다. 이 이상한 소년의 행동은 묘한 힘이 있어서 진은 그를 거부하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그의 다음 행동은 진을 더욱 당혹스럽게 했다.

그는 한 손으로 진의 두 볼을 꼭

놀렸다. 자연스럽게 다물린 입이 벌어졌다. 그는 이상한 표정으로 진을 보았다. 진이 열이 나서 누워 있을 때 할머니가 진을 내려다보던 표정.

그는 그대로 진에게로 몸을 굽혔다. 그의 얼굴이 점점 다가왔다. 설마 뽀뽀하려는 걸까?

진은 겁에 질렸다. 처음으로 입 맞춘 사람에게 시집을 가야 한다는 구시대적 이야기를 당시 그녀는 아직 믿고 있었다.

「이제 안 우네.」

그러나 그는 순식간에 원래대로 몸을 펴고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녀가 본 첫 미소였다. 눈가가 접히

고 입꼬리가 유쾌하게 말려 올라간다. 어떤 풍경이 떠오르는 웃음이었다. 그녀는 이 웃음을 아주 오랫동안 잊지 못했다.

진이 물었다.

「너는 이름이 뭐야?」

새벽녘처럼 웃는 그가 대답했다.

「루카스.」

루카스는 끝끝내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부모님은 누구였는지, 그 산속에 왜 혼자 있었고 내려가는 길은 어떻게 알았는지 말하지 않았다.

당연히 내쫓을 줄 알았는데 할머니는 루카스를 받아들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심 그녀의 또래 친구

가 생긴 게 기쁘셨던 것 같다.

그는 초반의 우아한 모습을 금세 포기했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첫 식사부터 수저 없이도 빵을 잘 먹었고, 동물의 목을 비틀어 죽이는 것에도 거리낌이 없었다.

그는 곧 진의 친구가 됐다. 처음부터 반쯤은 예상했지만 그는 진을 놀리는 걸 좋아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잘 대해주었다.

그는 종종 진이 재미있다고 했다. 그녀는 그런 칭찬을 들어본 게 처음이어서 낯설었고 마냥 좋았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다. 그 일이 있는 뒤부터 할머니는 한동안 그녀

를 집 밖에 내보내지 않았다. 진은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다. 루카스도 덩달아 하루 종일 그녀의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사냥을 하러 나가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녀와 그렇게 오래 있어준 사람은 루카스가 처음이었다.

그러나 영원히 집에 틀어박힌 채 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얼마 뒤, 진은 루카스와 함께 마을로 나갔다. 그가 마을 구경을 하고 싶다고 했기 때문이다.

진은 루카스에게 자기가 처한 상황을 이야기할 용기가 없었다. 대신 그녀는 괜히 안 잡던 그의 손을

딱 잡았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놀고 있던 아이들이 한꺼번에 그녀를 돌아보았다. 먹잇감이 제 발로 기어들어오는 꼴처럼 보였을 것이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그녀에게 달려오다가, 못 보던 얼굴에 약간 당황해서 멈춰 섰다.

「누구야? 이사 왔어?」

루카스는 어깨를 으쓱했다. 시골 아이들이 함부로 굴기에 루카스는 오만한 데다 잘생기기까지 했다. 아이들은 새로 이사 온 아이가 뭣도 모르고 멍청한 애랑 논다고 생각하는 눈치였다.

남자아이 하나가 억지로 루카스의

손과 그녀의 손을 떼놓았다. 포목
점 아들 토마스였다. 루카스는 그
녀를 흘끗 보았지만 굳이 저항하지
는 않았다.

손의 온도가 멀어진다. 그녀는 눈
물을 참으려고 입술을 깨물고 바닥
을 노려보았다. 토마스의 밝은 목
소리가 이어졌다.

「젠 맨날 술래 하는 애야. 그럼
우리 이제 술래잡기 게임 하자! 너
도 할 거지?」

그녀는 일말의 희망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며 루카스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래? 좋아.」

익숙한 절망이 몸을 감쌌다. 그녀

는 입술을 깨물었다. 익숙한 일이
었다. 아무도 그녀의 곁에 있으려
하지 않는다. 그녀가 저 중에 있었
더라도 아마 그랬을 것이다.

루카스는 그녀를 흘끗 보고 다시
토마스에게 고개를 돌렸다.

「술래가 잡은 사람이 술래가 되는
거 맞지?」

「응!」

「그럼 시작한다. 셋, 둘, 하나!」

아이들이 까르르 소리를 지르며
흠어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올렸다.

루카스는 혼자 가만히 서서 그녀
를 보고 있었다. 둘 사이에만 시간
이 멈춘 것 같았다. 그가 눈썹을

짱그리면서 웃었다. 다소 서글픈 눈빛으로.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올려서 축 늘어진 진의 손을 잡았다.

「내가 술래네.」

눈물로 흐려진 시야 너머로 당황해서 멈춰 선 아이들이 보였다. 진 역시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전혀 파악이 되지 않았다.

루카스는 그녀의 손을 놓고 등을 돌려 저벅저벅 걸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토마스의 앞에서 멈췄다.

「어, 어…….」

「안녕.」

루카스가 웃었다. 토마스가 따라

바보 같은 웃음을 지었다.

퍽.

아주 순식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 서 있던 토마스가 코를 쥐고 주저앉았다. 루카스는 아무 일도 없었던 양 그대로 서 있었지만 주먹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는 무릎을 굽혀서 고개 숙인 토마스의 머리채를 쥐어 당겼다. 토마스의 고개가 획 꺾였다. 코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하얗게 질린 그의 얼굴에 대고 루카스가 말했다.

「이제 네가 술래야.」

돌아오는 길에, 루카스는 심통이 단단히 난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 일은 할머니한테 말할 거야.」

「……고마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땐 맞서 싸워. 그런 거 할머니한테 배우잖아.」

「응.」

「모든 건 싸워서 쟁취하는 거야. 늘 승리해야 해.」

지금 생각해보면, 열한 살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었다.

그녀가 맞서 싸울 틈도 없이, 그 일 뒤로는 누구도 그녀를 게임에 끼워주지 않았다. 원래 그런 류의 괴롭힘은 뒷감당을 할 필요가 생기면 사라지는 법이다. 루카스는 딱

봐도 '전드리면 곤란해질' 타입이었다.

나이가 좀 찬 뒤로는 어른들도 지쳤는지 이제는 그냥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거나 대꾸를 하지 않는다. 다소 온건한 방향으로 방식을 바꿨다.

게다가 마을 여자들은 루카스를 좋아했다. 잘생기고 싹싹한 아이라고 손에 사탕을 쥐여주거나 - 결국 그녀가 먹었다 - 머리를 쓰다듬어줬다. 아무래도 그 때문에 진에게 더 못되게 굴기 민망해진 것도 있었을 것이다.

할머니는 이번 일을 계기로 산속 오두막으로 집을 옮겼다. 루카스는

진의 침대 위에 올릴 이층침대를 만들었다. 그는 사냥이든 뭐든 곧잘 했고, 할머니도 그를 마음에 들어 하는 눈치였다.

무엇보다 루카스는 진의 소중한 친구였다. 그는 가끔 할머니와 아주 비슷한 말을 해서 그녀를 놀라게 했다.

「세상은 형편없는 사람들밖에 없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 받지 마.»

그리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다.

「이 세상 사람을 전부 합친 것보다 네가 백배는 나아.»

「.....」

「너는 내가 본 모든 사람 중에 가장 강한 사람이야. 지지 마.」

대체 그녀의 무엇을 보고 그렇게 낮부끄럽게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의 눈빛은 항상 진지했다. 게다가 그는 그녀가 그 말을 당연하게 여길 때까지 계속 그렇게 말해 주었다.

그래서 그녀는 정말로 강해졌다. 모든 압력과 비웃음에 맞서 싸울 수 있었다.

그런데도 가끔 잠이 들 수 없는 날, 새벽 3시에 잠이 안 온다고 루카스를 깨워도 그는 짜증 한번 안 내고 별 구경을 하러 나갔다.

산은 공기가 좋아서 별이 아주 잘

보였다. 그녀는 시답잖은 소리를 하다가 그대로 잠이 들곤 했다. 그렇게 눈을 떴을 때는 도로 침대였다.

그가 오고 나서 그녀의 인생은 많이 변했다. 그래서 그녀는 가끔씩 그가 그녀를 구해주러 온 존재처럼 느껴졌다.

루카스가 부모도 직업도 아무 배경도 없어서 더욱 그렇게 느껴졌는지도 모른다. 종종 인외의 존재처럼 느껴지는 분위기 때문일지도.

아무튼 그녀가 혼자 살아갈 힘을 얻었으니, 그는 목표를 달성해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릴 것 같았다. 그래서 매일 다짐했다. 그가

어느 날 홀연히 떠나더라도 원망하지 않겠노라고.

할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그녀는 불면에 시달렸다. 참다 참다 못해 그를 깨워서 별을 보러 간 날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하늘을 보았고 루카스는 그 옆에 앉아 흠쳐온 술을 훌쩍이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입을 열었다.

「좋아해.」

루카스는 입에 머금은 술을 도로 뱉어낼 뻔했다. 킁킁거리면서 원망스러운 눈으로 그가 그녀의 옆모습을 훑었다. 그녀는 가볍게 웃었다.

「그런 뜻이 아니야.」

「.....깜짝이야.」

「네가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
까.」

「난 네가 날 싫어할 줄 알았는데.」

그녀는 좀 놀라서 루카스를 돌아 보았다. 루카스는 계속 기침이 나는지 그녀로부터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왜?」

「난 너무 잘났으니까.」

그녀는 표정을 찡그렸다. 하지만 유독 감상적인 날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평소였으면 하지 않았을 말까지 했다.

「할머니는 우리가 결혼할 줄 알았
대.」

「꿈이 원대하셨네.」

그녀는 웃었다. 루카스가 별말이
없어서 그녀가 계속 말했다.

「나중에 너 결혼하면 외롭겠다.」

「너도 하면 되지.」

「난 그냥 안 할래.」

「왜?」

「그냥, 하기 싫어.」

루카스 빼고는 마을 사람들뿐이니
까. 그 사람들이 그녀와 결혼해줄
리도 없을뿐더러 결혼하고 싶지도
않았다.

「꼭 해야 한다면?」

「너랑 할까?」

농담이랍시고 한 말이었는데 생각 보다는 팬츠를 것 같기도 했다.

루카스는 대답하지 않았다. 루카스가 무슨 표정을 하고 있을지 궁금했다. 그녀가 고개를 돌리려고 했을 때 눈 위로 루카스의 손이 가만히 덮였다. 갑자기 잠이 쏟아졌다.

그가 옆에 있으면 언제나 잠이 잘 왔다. 루카스가 그녀의 머리를 계속 쓰다듬는지, 잠들 때까지 머리 위로 따뜻한 손길이 계속 느껴졌다.

잠과 현실의 사이 애매한 경계에서 꿈결 같은 루카스의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 진.」

그녀는 잠결에 생각했다. 루카스가 드디어 떠나려나 보다. 그래서 그녀는 대답했다. 아니면 그저 생각에 그쳤는지도 모른다.

잘 가, 루카스. 그동안 고마웠어. 널 용서할게.

왜 그때 하필이면 용서라는 말을 떠올렸을까. 이상한 일이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는 언제나처럼 침대 위였다. 그녀는 몸을 일으켰다. 방 안에 냉기가 돌았다. 추위와는 좀 달랐다. 사람 하나 분의 온기가 사라진 자리. 테이블에 영문 모를 돈주머니가 있었다.

웬지 그녀는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녀는 위층 침대를 보았다.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 가지런히 개인 베개와 이불이 그녀를 비웃듯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

다시 지금.

그녀가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아주 많은 시간이 걸렸다. 너무 많은 충격이 한꺼번에 닥쳤다.

루카스가 황자? 황자라고? 너무 터무니없는 말이 아닌가. 맨손으로 토끼 뒷다리살을 발라먹던 루카스가, 이제는 식탁에 앉아서 스테이크를 썰다니.

그가 떠났을 때 그녀가 놀라지 않

있던 건, 그가 항상 사라질 것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어디에도 발붙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데 황자라니? 그 말은 아버지가 황제에, 어머니는 황비라는 뜻인가? 그건 다른 의미로 멀게 느껴지긴 했다.

그러나 그를 처음 봤을 때 아이의 것이라 믿기지 않을 만큼 우아했던 목소리와 태도를 생각해보면, 그리고 평소와 다른 없는 그의 행동을 보고 있자니 그 충격은 생각보다 빠르게 사그라들었다. 충격이 사라진 자리로 분노가 끼어들었다.

억울해하지도, 화내지도 않을 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건 모두 그

가 아예 떠나버렸을 때의 일이다.
다시 뻔뻔스럽게 나타날 거라곤,
애초에 생각해본 적도 없다.

일주일 정도는 그를 기다렸다. 한 달 동안은 내심 기대했다. 하지만 반년이다. 그녀는 홀로 사는 데 익숙해졌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건 루카스가 해준 말 때문이었다.

넌 강한 사람이야. 혼자 살아갈 수 있어.

그래서 지금까지 그녀는 버텼다.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는 돌아왔다. 황자가 되어서.